

건강 칼럼

한의학의 황금 사용법은

인류가 발전하여 오면서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은 무엇일까?

다이아몬드, 소금, 차 등이 일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가장 오랫동안 그 가치를 광범위하게 인정받아 온 것은 황금이 아닐까 생각된다. 재산의 보관하는 방법으로 황금은 가장 사랑 받는 것이었다. 옛날부터 황금장식과 귀금속, 황금그릇, 건물, 불상, 불교장식품 등의 귀한 곳에는 항상 황금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황금을 만드는 연금술이 발달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옷에 황금을 사용하였다. 옷에 금박을 옷에 붙이거나 금실로 수를 놓거나 금을 넣어 직물로 옷, 신발, 장식품, 모자를 만들기도 하였다. 금빛 찬란한 황금 옷과 장식품은 아름다움과 부의 상징이었다.

현대에 와서도 금은 매우 유용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용, 가정용 전기전자제품인 핸드폰, 카메라, 계산기, 세탁기, 에어컨, 반도체 등의 첨단장비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이 쓰이고 있다.

다른 어떤 재료보다 녹이 슬지 않고, 늘어나는 연성이 좋고, 열과 전기를 가장 잘 통하기 때문



김수범

우리한의원장

이다. 음식이나 화장품에도 황금이 쓰이고 있다. 금가루, 금실 등을 음식이나 화장품에 섞어서 쓰거나 고운 금가루를 음식이나 화장품에 넣어 가치를 높였다.

한의학에서도 오래 전부터 금과 은을 이용하였다. 잘 알려진 우황정심환, 공진단, 은단과 같은 귀한 환(丸)·단(丹)약에 금박을 섞어서 복용을 하였다.

황금을 먹는 이유는 무엇인가? 금이라고 하면 금속이기 때문에 아무리 귀하고 비싸다고 하더라도 먹는 것에 대하여서는 의심을 가질 것이다. 동의보감에 보면 금을 생으로 먹으면 사람이 죽지만도 연속(鍊熟)하여 가공하면 독이 없고 약으로 쓸 수 있다. 세상의 만물 중에 오직 파괴되지 않는 것이 황금이다.

금(金)은 오행의 극(極)이니 오행(五行)이 상생(相生)하여 금에 이르러서 마지막 극에 이르고, 다시 물(水)을 만들고 물(水)이 나무(木)를 낳고, 나무(木)가 불(火)을 낳고, 불(火)이 흙(土)을 낳고, 흙(土)이 쇠(金)을 낳으니 금(金)이 최후에 나서 오행의 기를 갖추었다. 금은 단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불에 달구어도 변치 않으니 순수한 양(陽)으로 지극한 보배이다.

황금의 효능은 무엇인가? 금은 정신을 진정시키고 혼백(魂魄)을 안정하며, 심장을 진정시키며, 오장(五臟)을 도와주고 정(精)을 돕고 골수(骨髓)를 보하고, 소아경기(驚氣)를 진정시킨다. 즉 금은 정신을 안정시키고, 심장을 진정시키며 오장을 돕고 정(精)을 보충하여 준다.

공진단, 우황정심환에 금박을 입혀서 복용을 하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오장과 정(精)을 보해준다.

요즘에는 금을 매선으로 이용하여 쓰기도 한다. 오래 전부터 금을 가는 철사처럼 만들어 통증을 조절하는 곳에 금사를 지입을 하였다.

그래서 허리, 목 등에 X-ray를 찍어보면 가는 흰 선이 그대로 나왔다. 요즘은 금사, 금실을 가늘게 하고 멸균소독을 하여 매선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혈자리에 매선을 지입하여 기혈의 순환을 돕거나 척추, 관절부위의 인대, 근육부위에 놓아서 인대와 근육을 강화하고 기혈의 순환을 도와 준다.

피부질환이 잘 안 낫거나 종기, 몽우리 등이 잘 안 없어지는 경우에 황금매선을 지입하면 피부의 순환을 돕고 기혈의 순환을 도우며 진정하는 작용이 있어 효과적이다.

또한 피부, 미용 등에 많이 쓰는 매선을 금매선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안면에 금매선을 지입을 하면 얼굴을 작게 하는 리프팅 효과, 피부미백효과, 주름개선효과 등의 효능도 있다.

사설

코로나 힐링을 위한 여산목연전

코로나 팬데믹 힐링을 위한 서예전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전북 익산 출신 서예가 고(故) 여산(如山) 권갑석(權甲石) 선생 제자들의 제4회 여산목연전이 최근 전북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열렸다.

여산목연전은 여산 선생의 제자들이 구성됐다. 스승의 정신을 기리고, 서예의 명맥을 잇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이들은 매년 여산의 작품을 한 점씩 전시해 독자성을 추구한 그의 창작 서체인 여산체를 알리고 있다.

제자들의 다채로운 작품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국중덕, 권영수, 허장욱 등 29명의 작품이 전시됐다. 여산은 행서 등 한문 서예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여산은 익산 송림사 일주문 편액과 월출산 도갑사, 오복대 대종가, 정산중사 빗물 노래 시비를 쓰기도 했다.

그는 국전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 등을 역임했다. 교사 시절

본격적인 서예 공부를 시작한 여산은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연이어 입선과 특선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중앙 이산만 선생의 서예비가 전주 덕진 체면공원에 세워진 것은 그의 남다른 집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는 두 딸과 함께 가족 서화전을 열기도 했다.

‘삼산(三山) 가족서화전’은 평소 여산의 소망이었다. 여산(如山)을 포함, 유산(楡山) 영수씨와 한국화가 안산(安山) 영주씨가 목향을 통해 그 꿈을 담았다. 여산은 1989년 정년퇴임 때까지 46년 동안 교직에 몸을 담았다.

그는 지난 2008년 4월 25일 작고했다. 여산목연회의 창립 이념은 서예술의 정초와 전통문화 계승 정신에 부응하는 것이다.

47년을 함께 해 온 회원들은 연륜에 걸 맞는 민족스런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그런 만큼 전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술적 감동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시자의 인류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시자 문선명 총재 천주성화 9주년 기념식이 최근 개최돼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 194개국 정치·경제·종교 지도자 및 가정연합 회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기념식은 '하늘에 대한 효정(孝情), 세상의 빛으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특히 이번 행사는 증강현실(AR) 온라인 플랫폼 기반 형태의 양 방향 화상 통신 시스템과 스트리밍 시청으로 실시됐다.

국제적인 참석자들을 위해 16개 언어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그밖에 유교·이슬람교·개신교·불교·대종교·천도교·가정연합 등 세계 7대 종단 지도자들의 평화 축원식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문선명 총재는 지난 1920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지난 2012년 9월 30일(음력 7월 17일) 성화했다. 문선명 총재는 1954년 세계기독교통일신령

협회를 창시했다.

그 뒤 세계 194개 선교국을 둔 세계적인 종단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일평생 동안 세계평화와 종교 화합,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한 전 분야에서 헌신해 왔다. '전 인류 한 가족'의 평화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끝없는 열정과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국제적인 초종교·초국가·초인종 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했다.

한학자 총재는 "지난 60년간 단계적으로 많은 선편 과정을 통해 마침내 2013년 기원절을 선편했다. 그리고 천일국 안락을 선편했다"고 말했다.

요즘 갈수록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으로 사람들이 전쟁과 독재가 아닌 자유와 평화의 안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이날 때일수록 세계 여러 기구와 더불어 한반도의 소통과 통일, 평화와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때이다. 문선명 총재의 인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인류 역사에 큰 등불이 되어 앞날을 밝혀 줄 것을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고문

별초, 별 쏘임·예초기 사고 주의해야

별초는 조상의 묘에 자란 잡초를 베고 묘 주위를 정리하는 일로 자녀로 친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백중 이후부터 추석 전에 보통 하게 된다. 백중 이후에는 풀의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이맘때 별초를 베두면 오랜 기간 동안 조상의 묘가 깔끔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별초가 생각보다 위험하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별 쏘임 사망자 45.6%, 예초기 사고 45.6%가 별초 시즌에 발생하고 있다. 별초 시기가 되면 별 쏘임 사고와 예초기 안전사고가 급증해 주의가 필요하다.

별초 작업을 실시할 경우 땅속에 집는 장수말벌과 땅벌을 조심해야 한다. 쏘이게 되면 신경계 이상이나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묘 주위의 우거진 관목이나 풀숲에 먼저 나뭇가지나 흙 등을 뿌려 흙이 있을지 모를 벌의 존재 여부를 파악한 뒤 작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벌은 검정색 등 어두운 색에 더 강한 공격성을 보이므로 별초를 할 때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어야 한다. 혹 벌집을 건드렸거나 쏘였다면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하고 벌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별초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예초기 사고 또한 별초 시즌에 급증한다. 예초기를 사용하면 빠르고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경소 예초기를 자주 다루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주 위험할 수 있다.

사용 전에는 반드시 사용법을 숙지해야 하고 날이 견고하게 부착되어



김성진

남원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경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안경, 보호 장갑, 무릎보호대, 안전화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잔돌이나 파편이 비산하여 주변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 예초기를 사용하는 사람 주위 작업 반경에는 다른 사람이 근접하지 않도록 한다. 작업 중 예초기 날에 풀이 감기거나 이물질이 끼어 날이 회전하지 않을 때는 날이 회전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이물질을 제거해야 갑자기 날

이 회전하여 부상을 당하는 일이 없다.

작업 중 주로 다치는 부위는 다리와 발이고 그 다음이 팔과 손이며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안전하게 행동을 한다 해도 불가피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119에 신고를 해야 하고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여 구조대나 구급대가 신속하게 현장에 찾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위치를 설명해 줘야 한다.

환자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는 방법으로 영상통화도 하나의 방법이며 쉽고 빠르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가급적 다른 곳과 통화를 자제해야 소방대가 출동 중 추가 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올해는 별초 작업 시 벌 쏘임이나 예초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기를 바란다.

Large advertisement for Jeonju Maeil newspaper featuring a boat illustration and text about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humans who give courage and hope).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